

2018 상반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05월 17일(목)~18일(금)

부산영상산업센터, 부산영화의전당



주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KOREAN CAPITAL OF CULTURE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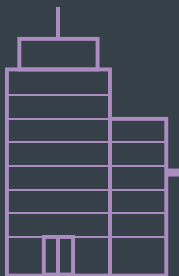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2018 상반기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5월 17일-18일
부산영상산업센터, 부산영화의전당**

2018 상반기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펴낸 때 | 2018년 5월 14일

펴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

(04536)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 길) 26

역은이 | 전진성 송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CL/2018/D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목 차

워크숍 개요 및 일정	1
-------------------	---

개회식

개회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5
환영사 박재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7
환영사 최진화 부산영화의전당 대표이사	9
축 사 김석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이사장	11

세션 1 | 유네스코 창의도시 바로알기

유네스코 최근 동향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15
--------------------------	----

창의도시 간 협력 및 인력양성의 중요성

박종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장	37
--------------------------	----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41
---------------------------	----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가하기

오재환 이천시 창의도시교류팀장	79
------------------------	----

세션 2 | 우리 도시와 문화 - 조별활동

조별활동 주제 및 조편성	89
---------------------	----

세션 3 | 부산도시영화제 연계 세션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개요 및 프로그램 참고자료	93
----------------------------------	----

워크숍 개요 및 일정

■ 워크숍 개요

1) **일시:** 2018년 5월 17일(목)-18일(금)

※ 17일(목) 워크숍 본 세션, 18일(금) 부산 영화창의도시 투어

2) **장소:** 부산시 일원

3)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4)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영화의전당

5) **참석자:** 총 80여명

- 한국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정회원 및 예비회원 도시
- 관련 부처·기관·단체 관계자
- 관련 분야 전문가 등

6) **주요내용**

-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의미와 방향성 등에 대한 강의
- 한국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회원도시 관계자 이슈별 조별활동
- 도시 내에서의 문화기획자, 지자체, 기업 간 협력방안 논의

7) **기대효과**

-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제고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및 운영 관련 정보 공유
- 기가입 도시 및 가입 관심 도시들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증진

■ 워크숍 세부일정

시간	세부내용		장소																		
5월 17일 (본 세션)																					
10:30-11:00	30'	참가자 등록																			
11:00-11:20	20'	<개회식> - 개회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박재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 환영사 최진화 부산영화의전당 대표이사 - 축 사 김석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이사장	부산영상 산업센터 컨퍼런스홀																		
11:20-12:20	60'	<세션 1 유네스코 창의도시 바로알기> - 발표 1 유네스코 최근 동향 /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 발표 2 창의도시 간 협력 및 인력양성의 중요성 / 박종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장 - 발표 3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 /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발표 4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가하기 / 오재환 이천시 창의도시교류팀장																			
12:20-13:40	80'	점심식사 (부산시 부시장 주재)		만파식적																	
13:40-15:50	130'	<세션 2 우리 도시와 문화 - 조별활동> - 4조로 나누어 창의도시 관련 주제에 대해 서로 토의 - 조별 논의내용 발표 10분씩*4조 - 조별 논의내용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20분	부산영상 산업센터 컨퍼런스홀																		
15:50-16:10	20'	장내정리 및 장소 도보이동(영상산업센터▶영화의전당)																			
16:10-17:50	90'	<세션 3 부산도시영화제 연계 세션> - "In the City, 그리고 2030 Agenda": 부산도시영화제 주변도시 브라질 산토스, 부산의 단편영화 작품을 통해 도시 안 삶을 이해하고 2030 Agenda의 의미를 탐색	부산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간</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6:10-16:15</td> <td>행사 시작, 환영사</td> <td>진행 : 집행위원장</td> </tr> <tr> <td>16:15-16:45</td> <td>제1회 도시영화제, 레지던시 사업 메이킹 영상 감상 및 도시영화제, 레지던시 사업 개최 이유 및 의의 살펴보기</td> <td>진행 : 집행위원장</td> </tr> <tr> <td>16:45-16:50</td> <td>산토스영화제 담당자 인사영상</td> <td>Niedja de andrade</td> </tr> <tr> <td>16:50-17:30</td> <td>부산, 산토스 단편영화 감상 - 부산: <집 속의 집 속의 집> - 산토스: <내 운명을 연주하다></td> <td></td> </tr> <tr> <td>17:30-17:50</td> <td>작품해설 및 GV</td> <td>김기만 총괄 프로그래머, 전찬영감독, Dandi Quiroz감독</td> </tr> </tbody> </table>				시간	내용	비고	16:10-16:15	행사 시작, 환영사	진행 : 집행위원장	16:15-16:45	제1회 도시영화제, 레지던시 사업 메이킹 영상 감상 및 도시영화제, 레지던시 사업 개최 이유 및 의의 살펴보기	진행 : 집행위원장	16:45-16:50	산토스영화제 담당자 인사영상	Niedja de andrade	16:50-17:30	부산, 산토스 단편영화 감상 - 부산: <집 속의 집 속의 집> - 산토스: <내 운명을 연주하다>		17:30-17:50	작품해설 및 GV	김기만 총괄 프로그래머, 전찬영감독, Dandi Quiroz감독
시간	내용	비고																			
16:10-16:15	행사 시작, 환영사	진행 : 집행위원장																			
16:15-16:45	제1회 도시영화제, 레지던시 사업 메이킹 영상 감상 및 도시영화제, 레지던시 사업 개최 이유 및 의의 살펴보기	진행 : 집행위원장																			
16:45-16:50	산토스영화제 담당자 인사영상	Niedja de andrade																			
16:50-17:30	부산, 산토스 단편영화 감상 - 부산: <집 속의 집 속의 집> - 산토스: <내 운명을 연주하다>																				
17:30-17:50	작품해설 및 GV	김기만 총괄 프로그래머, 전찬영감독, Dandi Quiroz감독																			
17:50-18:00	10'	장내 정리 및 저녁식사 장소 이동																			
18:00-자유	N/A	저녁식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이사장 공동주재)	도쿄120																		

5월 18일 (부산 영화창의도시 투어)

09:30-12:25	175'	영화창의도시 현장 답사-1 -세부 진행순서 및 내용			영화체험 박물관, F1963
		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호텔로비 집결 및 이동	호텔 ▶ 영화체험박물관	
		10:00-11:00	영화체험박물관 견학	국내 최초 영화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11:00-11:25	이동	영화체험박물관 ▶ F1963	
		11:25-12:25	F1963 견학	폐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12:25-13:25	60'	점심식사			복순도가
13:25-13:30	5'	이동 (식사장소 ▶ 영화의전당)			
13:30-자유	N/A	영화창의도시 현장 답사-2 - 13:30-14:00 영화의전당 주요시설 견학 - 부산도시영화제 자유관람 *신청자에 한해 영화제 참여 가능한 ID카드 배부			영화의전당

개 회 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국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정회원과 예비회원 도시 관계자 여러분, 또 이번 2018 상반기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의 부산 개최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부산시와 부산영화의전당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11월 아름다운 음악창의도시 통영에서 만나고, 이렇게 6개월만에 다시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도시 부산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위원회는 올해 초, '한국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들은 정회원으로, 향후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은 예비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하여, 국내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이 보다 활발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닦고자 했습니다.

정회원 도시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이후에, 가입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창의도시로서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이름표가 단순히 하

나의 간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비회원 도시에 대해서는,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이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차근차근히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 지정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간단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도시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의 출범에 이어 지난 3월에는, 한국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위원 분들을 위촉하였습니다. 총 11분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이 국내에서 문화, 외교, 산업, 도시공학 등의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 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11분이 모두 참석해주셨습니다. 한 자리에 모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 만큼, 각 도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워크숍 기간 중 틈틈이 자문위원 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도시 운영과 관련한 고민 상담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참가하신 여러분께서 서로 이야기도 좀 더 나누시고, 호스트 도시인 부산의 창의도시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미도 있고 배움도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박재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2018 유네스코 창의도시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을 방문해 주신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다와 산, 강이 도시와 어우러져 빛어내는 부산만의 봄 정취가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20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에 선정된 인구 350만의 대도시 부산은 21세기 최첨단 산업도시의 면모와 70~80년대의 풍경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해운대의 마천루와 같은 상업적 화려함이 있는가 하면 자갈치시장과 산복도로 등의 옛 추억에 대한 향수도 품고 있는 복합적인 이미지로 영화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영화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은 1924년 국내 최초의 영화제작사인 '조선키네마(주)'가 설립된 이후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는 등 한국 영화사의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오다,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영화도시로서의 문화 브랜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설치된 필름커미션인

부산영상위원회를 비롯, 영화촬영스튜디오·영화의전당·영상산업센터·영화체험박물관·아시아영화학교 등 그동안 축적된 물적 인프라는 물론이고 부산국제영화제뿐 아니라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도시영화제 등 사시사철 열리는 다양한 영화제와 영상·콘텐츠관련 기관·단체, 부산 영화인들, 그리고 부산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의식 덕분에 지난 2014년, 부산은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영화 창의도시로서의 부산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영화의 도시(Film For All)'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화관련 생산 및 소비, 향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영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고용창출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그 핵심요소입니다.

앞으로도 영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영화를 문화의 한 장르로 향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교육사업과 문화 활동을 병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의 확산, 공유, 실현을 위해 우리 시는 끊임 없는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러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각 도시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꽃피우고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성장해 왔는지 다양한 시책과 경험들을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와 제안을 통해 국내 도시간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계절의 여왕 5월, 우리 부산을 찾아주신 귀한 발걸음을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최진화 부산영화의전당 대표이사

20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 부산에 방문해 주신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이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가치를 어떻게 잘 구현해나갈 것인지 논의하고 교감하며, 도시 상호간의 연대를 확장하는 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창의도시들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과 계획을 나누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자신 있게 수행하도록 응원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스스로가 타 도시의 조력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모인 이 자리는 분명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유연하고 단단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견고함에 기대어 도시별 자산을 창의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지역 간 거리를 뛰어넘는 문화적 공감대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전당은 '모두를 위한 영화 도시 (Film for All) 부산'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 왔습니다.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다른 나라, 다른 색깔, 다른 감성의 영화 상영, 시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 상영회',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영화 아카데미' 등 누구나 영화를 통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하에 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를 설치하여 약 1천여 편의 아시아 영화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영화의전당은 앞으로도 영화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공유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찾아주신 국내 창의도시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즐겁고 창의적인 시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석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이사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를 계기로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Korean Capital of Culture Organization, KCoCO)가 유네스코와 지속적 발전적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각 지역 시민들이 참여와 향유 속에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상된 삶의 질을 공평하게 누리는 데 기여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분들이 2014년부터 KCoCO에 모여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순재, 김동호, 김원, 안숙선, 양방언 님과 같은 문화계 분들을 비롯해서 각 분야의 뜻있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KCoCO의 주된 사업으로는 우선 '해마다 옮겨가며 특정지역을 코리아문화수도(KCoC)로 선정하여 일 년 내내 문화로 흠뻑 적시는'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이 있고, 금년으로 2년 째 문화부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지역문화기획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가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유럽문화수도(ECoC)는 1985년을 원년으로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리아문화수도(KCoC)는 3.1독립 100년이 되는 2019년을 원년으로 서울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집행위원장 이광주 님을 필두로 '수더분(문화수도와 더불어 하는 분)'들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화부 지원 사업은 때깔 빛깔 맛깔 색깔 성깔을 누구든 맘껏 살리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자는 의미로 '다함께 깔깔깔' 사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다함께 깔깔깔'을 유네스코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와 함께 계속하여 깔깔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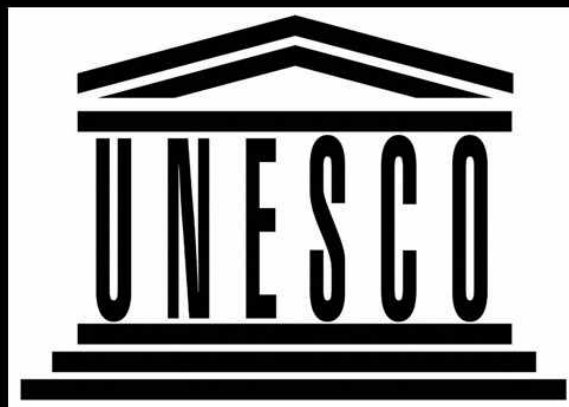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세션 1 | 유네스코 창의도시 바로알기

유네스코 최근 동향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15
창의도시 간 협력 및 인력양성의 중요성	
박종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장	37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41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가하기	
오재환 이천시 창의도시교류팀장	79

유네스코 조직 및 최근 동향 소개



파르테논 신전을 유네스코 로고로 채택한 이유?

2

-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인들이 페르시아 전쟁(BC492-BC448)의 승전기념으로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 봉헌물
 - 영원한 평화를 갈구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상징물
- => **평화에 대한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유네스코 로고로 채택**



3

유네스코 조직 구성?

4

1. 총회
2. 집행이사회
3. 사무국
= 본부 + 54 지역사무소 + 11 카테고리 I 센터
4. 국가위원회
5.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5

유네스코 주요기구

- **총회 (General Conference)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로 매2년 마다 개최**
- **주요기능**
 - 차기 회계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확정
 - 사무총장 임명 (임기 4년)
 - 유네스코 중기전략 (Medium-Term Strategy) 채택
 - 집행이사회 포함 주요 정부간기구 이사국 선출
 - 국제협약 및 권고 채택 등



유네스코 주요기구

-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 58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2년 회기 중 5회 개최**
- **주요기능**
 - 유네스코 조직의 사업 수행을 감독
 - 유네스코 총회의제 준비
 - 총회가 위임한 사항 심의 결정
 - 사무총장 지명 등
- **지난 2007년 34차 총회에서 집행이사국에 재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국으로 활동 중(현 임기 2019년까지)**



유네스코 주요기구

- 사무국(Secretariat) : 본부 및 54개 지역사무소, 11개의 유네스코 부속기구로 구성
- 주요기능 : 총회가 승인한 사업 예산을 집행
-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 사무국 수장으로 4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 1회 재임 가능
- 전체 직원 수 : 2016년 1월 현재 153개국 출신 1,800여명이 근무 중이며 약 70%가 본부에서 나머지 30%가 지역사무소에서 각각 근무



유네스코 주요기구

-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 회원국 정부가 설립·운영. 현재 195개 정회원국과 11개 준회원국을 통틀어 199개국에서 국가위원회를 설치·운영 중.
- 주요기능
 - 회원국 내 유네스코 활동 증진
 - 회원국 전문가 및 기관의 국제활동 지원
 - 사무국과 회원국 간 연락 및 자문
 - 국내는 물론 지역적, 국제적인 협력사업 수행



유네스코 주요기구

- 유네스코 상주대표부(Permanent Delegations) : 현재 184개국 정부가 유네스코 상주대표부를 설치 운영 중. (현재 우리나라 이병현 대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직 수행)
- 주요기능
 - 사무국과 회원국 정부 간 커뮤니케이션의 공식 창구 역할
 - 유네스코의 다양한 정부간기구 회의 참가
 - 회원국 협력



COMPOSITION

- ▶ List of Members
- ▶ Representatives
- ▶ Membership by Electoral Group
- ▶ Composition of the Bureau
- ▶ Team

CHAIRPERSON

16 November 2017: HE Mr LEE Byong-hyun is elected Chairperson

- ▶ Curriculum Vitae
- ▶ Activities
- ▶ Speeches
- ▶ Former Chairpersons

PRESIDENT
CONSEIL EXECUTIF

현재 유네스코의 수장?



제11대 유네스코 사무총장
Ms. Audrey Azoulay (프랑스)
2017년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

12

- **신임 DG 주도 개혁 드라이브: 3단계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Strategic Transformation)**
 - **기본구조: 내부조직 개편 => 대외관계 강화 => 사업 구조 정비**
 - **예산확보: \$2.1M (EX/20.PART.II.B)**
- ※ **개혁안 도출에 있어 전임 Bokova사무총장의 ('09년 취임, '10 IEE, '12 Roadmap) 패턴과 유사하나, DG(사무국)가 선제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력히 표명**

13

Strategic Transformation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GUIDING PRINCIPLES:

- 1) 중장기전략 우선순위에 맞춘 주요사업의 강화
- 2) 윤리원칙에 기반한 유네스코의 규범설정 및 아이디어 실험실 역할 강화
- 3) 유네스코 개방 (시민사회, 민간파트너십 등)
- 4)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및 현대화

14

Strategic Transformation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ACTION

- 행정관리섹터 신설 및 ERI 해체 (2018년 봄)
- 테마그룹 운영 (2019년 봄)
- 외부전문가 보고서 제출 및 40C/5에 반영 (2019년 가을)

FINANCES

- Communication Review (200k)
- Task Force (1203.6k)
- Advisory Group (739.5K)

Total: 2143.1K (약 23.4억원)

15

Strategic Transformation

유네스코 전략적 전환

CONCERNS

- UN 개혁 맥락과 일치
- 상세비용내역 (투명성)
- 회원국 담당부서 역할
- 국가위원회 역할 강화
-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및 상세임무 명시 등 요청

→ 사무국의 단독 주도가 아닌 회원국의 적극 참여 요청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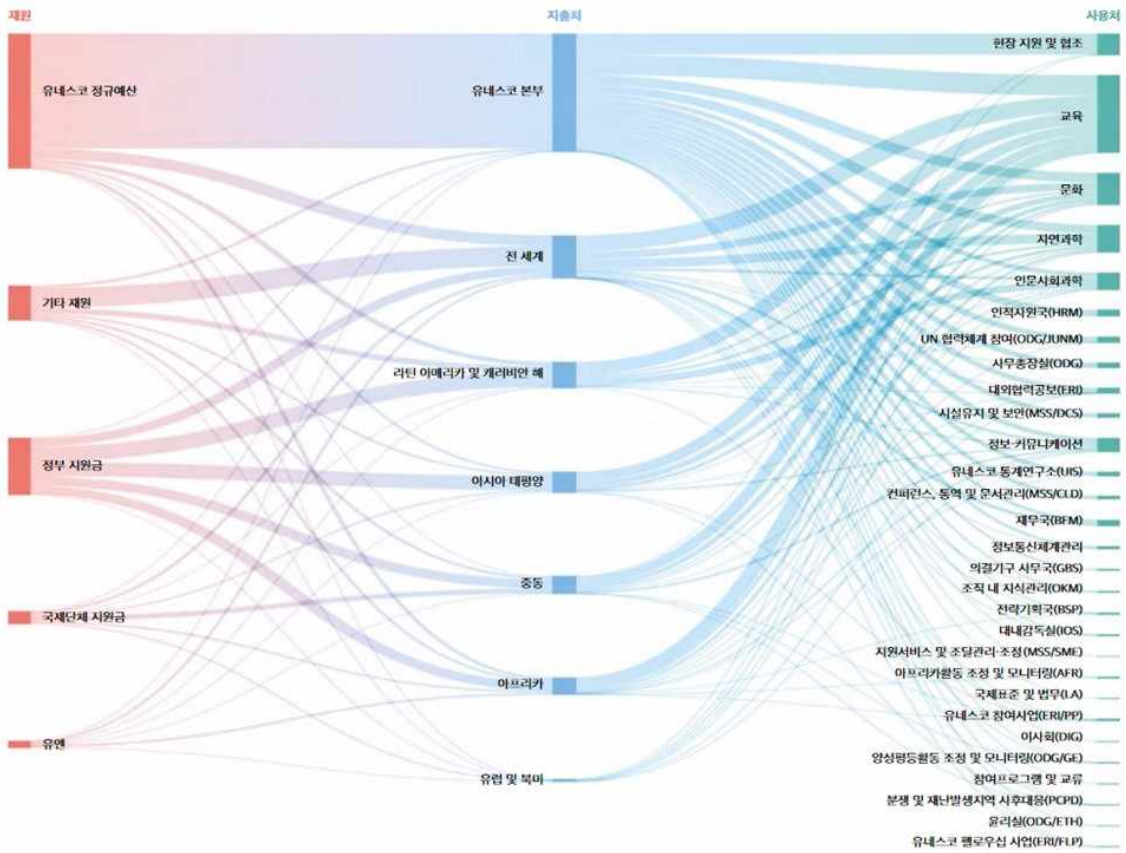
회원국 분담금 납부 제고 방안

※ 8개안: ①2년→1년 미납시 총회 투표권 박탈 ②1년 이상 분담금 체납 국가의 집행이사국 출마 제한 ③EXB 당선 이후 재임 기간 중 1년 이상 체납국 EXB 활동/선거권 제한 ④분담금 체납시 총회/EXB 발언권 제한 ⑤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부과 ⑥Working Capital Fund 보유금 2배 인상 ⑦비회원국 옹저버 활동에 대한 분담금 산정 매커니즘 도입 ⑧2년 이상 미납국 출신 사무국 채용 배제

- 인센티브보다 제재를 가하는 방식 강조, 타UN기관의 사례 검토 필요성 제기, 다수의 회원국 ⑧번 조항 우려 등 다수의 회원국 발언
- 추후 인포미팅 및 회원국 의견 수렴하여 40차 총회에서 최종 정책 결정 예정

17

유네스코 재정상황?



✓ 유네스코 예산 구성

- 유네스코의 예산은 정규예산과 비정규예산으로 구성
- 정규예산의 경우 회원국들의 의무 분담금으로 편성되며, 분담금의 비율은 국민총소득을 고려한 유엔 분담률을 기초로 책정

✓ 유네스코 예산 구성

- 상한제 및 하한제 적용
 - 최소 분담률(0.001%)
 - 최빈개발도상국(LDCs)에 대한 최대 분담률(0.01%)
 - 최대 분담률(22%)

✓ **회원국 분담금 순위**

- 2016~2017년 유네스코 정규예산 규모는 667백만 달러. 총회에서 함께 채택된 회원 국별 분담률은 미국(22%), 일본(9.679%), 중국(7.920%), 독일(6.389%) 등의 순으로 정해짐. 한국의 분담금은 13번째인 2.039%

[표2] 2016~2017년도 유네스코 전체예산 대비 회원국별 분담금 비율



✓ **분담금 상/하한**

- 분담률 순위에서 볼 수 있듯 유네스코 정규예산의 대부분은 상위 20개 국가의 분담금으로 대부분 총당.
- 최대 분담국이었던 미국에 책정된 분담금(22%, 약 7300만 달러)은 최하위 그룹 국가에 부과된 분담금(0.001%, 약 3300달러)의 **2만 2000배 정도**.

✓ **기부인 듯 기부 아닌 기부 같은 분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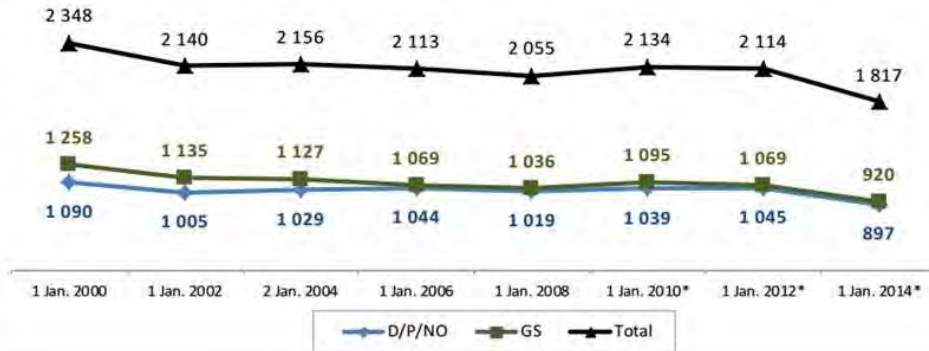
- 분담금은 비록 회원국들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단순한 '회비'의 개념이 아닌 '기여금'의 성격을 가짐. 그렇다고 해서 분담금이 오롯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자율 기부금은 아님. =>정치적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았던 미국은 2013년에 총회 투표권을 박탈당함

✓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 2017년 10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선언 시점 => 미국의 분담금 체납액 규모: 5억 5000만불
- 네스코 규정(6조)에 따라 미국의 탈퇴는 2018년 12월31일부터 효력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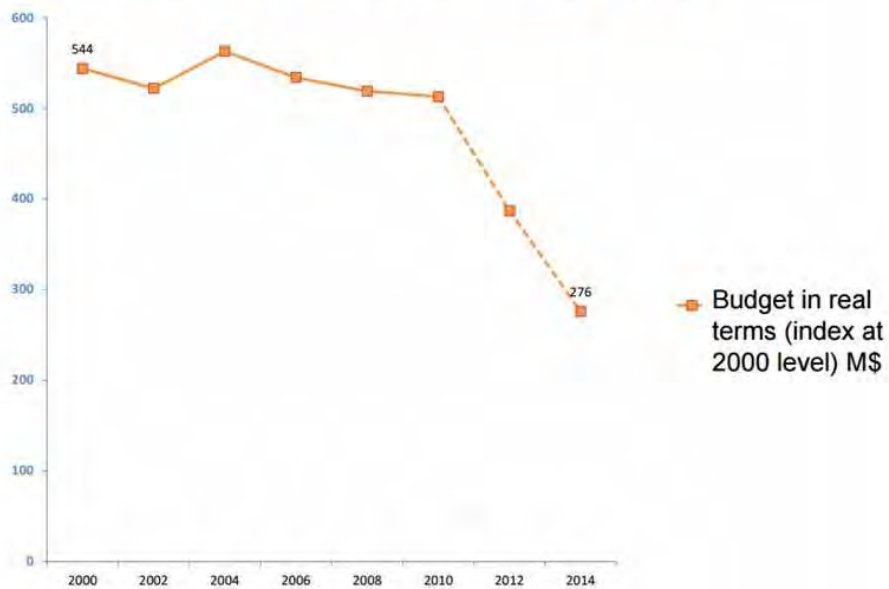
✓ 재정위기가 미친 영향력

V. 2: Evolution of STAFF** (RP/EXB posts) - last 13 years



✓ 재정위기가 미친 영향력

Decreasing RP Budget since 2000



✓ **비정규예산**

- 정규예산을 구성하는 의무 분담금 외에 회원국이 정규사업의 강화를 위해 추가로 기여하는 예산을 비정규예산이라함. 2016-2017년도의 비정규 예산 규모는 약 392백만 미불.

✓ **통합예산체계**

- 최근에 와서 유네스코는 정규예산 중심의 사업 예산 수립 방법에서 벗어나 정규예산과 비정규예산의 운영 계획을 하나로 합친 통합예산체계(Integrated Budget Framework)를 도입 => 유네스코가 활용 가능한 모든 재정 자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Summary of regular programme and extrabudgetary resources

PART	Regular Budget			Total 50 CFS Approved (6607M)			2016-2017 Expenditure Plan (8318M)			Extra-budgetary resources ⁽¹⁾
	Operational budget	Staff budget	Total	Operational budget	Staff budget	Total	Operational budget	Staff budget	Total	
PART I - GENERAL POLICY AND DIRECTION										
A. Governing bodies	8 411 800	2 100 500	10 512 300	7 696 800	2 100 500	9 797 300	-	-	-	-
B. Direction	1 953 400	16 296 000	18 249 400	2 274 900	16 159 200	18 434 100	2 961 000	-	-	-

TOTAL, PARTS I-V 300 016 800 366 983 200 667 000 000 184 297 000 333 703 000 518 000 000 392 012 600

2017 for which funds have already been received or firmly committed, plus the costs of posts financed from the Programme Support Costs f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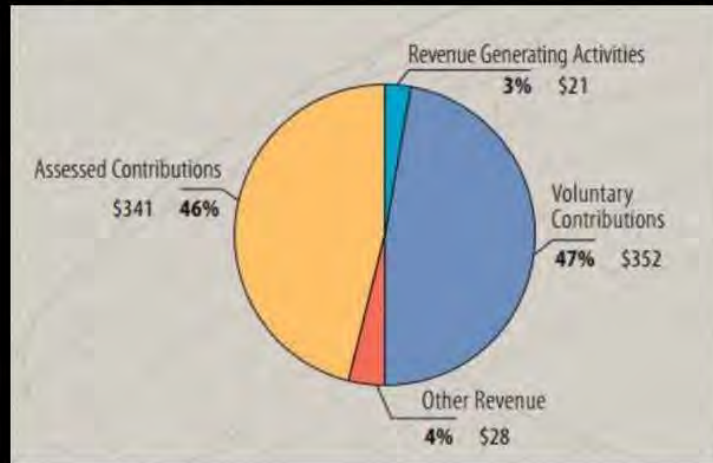
Statistical activities	26 290 600	41 053 800	67 344 400	12 755 300	25 555 100	38 310 400	187 380 100
of which RPO	5 296 300	8 564 400	13 860 700	2 748 400	7 406 600	10 155 000	6 262 000
Social and human sciences	15 197 000	22 925 900	38 122 900	6 698 800	18 759 200	25 458 000	26 162 100
Culture	20 494 000	33 945 400	54 439 400	11 422 200	32 245 800	43 668 000	45 408 900
of which WPI	7 206 300	11 440 800	18 647 100	3 451 500	11 205 900	14 657 400	28 506 000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15 705 600	14 666 600	30 372 200	6 458 300	17 193 100	23 651 400	16 712 600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9 648 800	-	9 648 800	7 694 800	-	7 694 800	-
Management of Field Offices	26 361 100	58 053 700	84 414 800	25 101 100	55 726 200	80 827 300	1 396 600
Supplementary funding for the Field Network Reform	1 000 000	4 000 000	5 000 000	-	-	-	-
Total, I.A.	187 784 900	230 031 200	417 816 100	102 063 000	210 865 700	312 928 700	361 639 000
B. Programme-related services							
1.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action to benefit Africa (AFB)	4 242 700	3 889 400	8 132 100	598 500	3 574 900	4 173 400	-
2.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action to implement Priority Gender Equality (G2)	625 700	1 615 000	2 240 700	316 100	1 293 000	1 609 100	377 000
3. UNESCO's response to post-conflict and post-disaster situations	790 100	800 300	1 590 400	314 500	660 300	974 800	-
4. Strategic planning, programme monitoring and budget preparation (SP2)	2 710 100	4 200 000	6 910 100	992 400	4 200 000	5 192 400	6 889 500
5. Organization-wide knowledge management (OKM)	653 500	4 398 500	5 052 000	318 500	4 398 500	4 717 000	2 775 200
6.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EPI)	5 142 000	19 522 500	24 664 500	3 454 200	18 250 400	19 704 600	891 400
7. Field support and coordination (FSC)	200 000	623 400	823 400	200 000	623 400	823 400	512 000
Total, I.B.	14 404 100	35 218 500	49 622 600	4 194 200	35 300 500	37 494 700	11 445 100
C. Participation Programme and Fellowships	16 812 900	1 562 800	18 375 700	11 966 900	1 562 800	13 529 700	-
TOTAL PART II	219 011 900	266 812 500	485 824 400	118 184 100	245 727 000	363 911 100	373 084 100
PART III - CORPORATE SERVICES							
A. Human resources management (HRM)	19 559 600	13 860 300	33 420 900	16 460 600	12 497 700	29 158 300	530 400
B. Financial management (BFM)	1 003 200	13 434 900	14 438 100	947 200	11 394 100	12 341 300	4 140 400
C. Management of support services (MSSP)	12 996 200	33 177 300	46 173 500	7 331 700	28 888 800	36 220 500	10 457 700
D.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communications (MIS)	2 301 800	9 282 300	11 584 100	1 158 800	8 510 100	9 668 900	418 000
TOTAL PART III	35 860 800	69 754 800	105 613 600	25 908 300	61 490 700	87 380 200	15 947 500
TOTAL PARTS I-III	283 557 600	354 958 500	649 053 100	347 255 400	538 883 400	744 243 900	952 116 600
Reserve for Staffing Adjustments	-	3 000 000	3 000 000	-	-	-	-
Reserve for the After-Service Health Insurance long-term liability (ASLI)	-	3 748 000	3 748 000	-	3 406 100	3 406 100	-
PART IV - LOAN REPAYMENTS FOR THE RENOVATION OF THE HEADQUARTERS PREMISES & THE ICE BUILDING	14 082 400	-	14 082 400	14 082 400	-	14 082 400	-
PART V - ANTICIPATED COST INCREASES	5 277 000	-	5 277 000	5 277 000	-	5 277 000	-
TOTAL PARTS I-V	300 016 800	366 983 200	667 000 000	184 297 000	333 703 000	518 000 000	392 012 600

✓ 유네스코 Voluntary Contribution

- 공여 주체가 정규예산 이외에, 유네스코의 비정규예산에 기여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통상적으로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라 함

✓ 유네스코 Voluntary Contribution

- 2015년 기준으로 유네스코 전체 수입의 46%가 정규예산으로 약 341백만 미불이었고, 47%가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로 조성된 비정규예산으로 약 352백만 미불에 달함 (2016-2017년에는 392만 불로 늘어남)



✓ Voluntary Contribution의 종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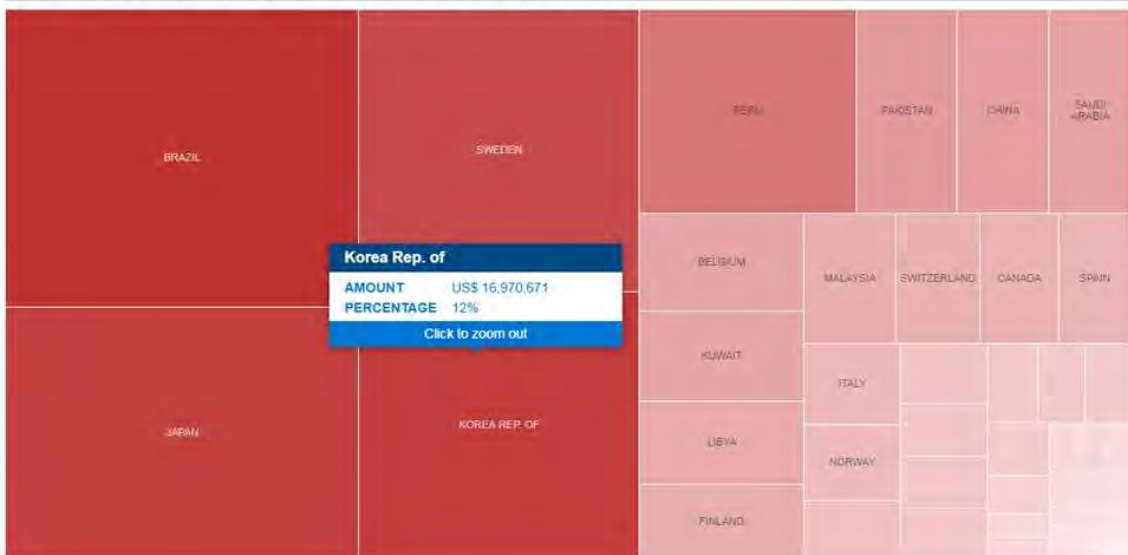
종류	기여금 사용처 지정 / 기금 사용 의사결정 권한	공여주체 수 / 사업 수	사업지원비용 (행정비용)	사업보고
신탁기금	사용처 지정: O 기금 사용 의사결정: O 종료 후 잔여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 O	단일 공여주체 / 한 개의 사업 (단일 공여주체가 여러 개의 사업 혹은 여러 공여주체가 단일 / 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직접비용의 13%	사업경과 보고서 연간 2회, 재정보고서 연간 2회, 최종 재정보고서안, 최종 서술보고서, 최종재정보고서
다자공여 특별계좌	사용처 지정: △ (주체에 대한 지정은 가능하나 세부 활동 지정 불가) 기금 사용 의사결정: X 종료 후 잔여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 O	다자 공여주체가 공동 출자 / 특별계좌 내에서 다양한 사업, 협약, 위원회, 회의 등 지원	직접비용의 10%	연간 1회 통합된 서술보고서와, 재정보고서(각 특별계좌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Voluntary Contribution의 종류와 특징

정규예산 추가지출 계획지원	사용처 지정: O, 특정 정 규사업 활동을 지원 기금 사용 의사결정: X (정해진 정규예산사업의 계획을 그대로 따름) 종료 후 잔여 기금에 대한 의사결정: X	단일 공여주체 / 특정 정규 사업	-	제공되지 않음(하 지만 서술보고서를 제공할 수는 있음. 이사회외 관리 차 트에 반영되어 재정 사용 투명성은 확 인되고 있음).
전문가파견 및 직원대여	-	단일 공여주체 / 특정 기관에 파견	전문가 파견: 직접비용의 13% 직원대여: X	전문가 파견: 사업 경과보고서 연간 2 회, 재정보고서 연 간 2회, 최종재정보 고서안, 최종서술보 고서, 최종재정보고 서 직원대여: 제공되지 않음

✓ 2017 비정규예산 사업 공여주체 상위국가 Overview

WHERE DO OUR FUNDS COME FROM? – Jan. - Dec. 2017



✓ **Voluntary Contribution에 관한 한-유네스코 MOU 체결**

- 2015년 12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외교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유네스코와 대유네스코 자발적기여에 관한 MOU를 체결, 2016년 12월 개정

✓ **Voluntary Contribution에 관한 한-유네스코 MOU 체결**

- 이 MOU는, 국내 각 부처·지자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대(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을
 -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 효과성을 높이며,
 - 유네스코 중장기 전략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체결

✓ **Voluntary Contribution에 관한 한-유네스코 MOU 내용**

- 자발적 기여의 종류
- 사업협력 논의와 계획수립 방식,
- 기여금의 전달과 관리
- 사업 모니터링과 검토 및 평가 등과 관련 유네스코, 외교부, 그리고 공여주체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시

✓ **Voluntary Contribution에 관한 한-유네스코 MOU 내용**

- 특히 MOU의 제2조 사업협력 이행계획(Work Plan on Programme Cooperation)에는
 - △대한민국 공여주체들이 앞으로 지원할 주요 사업 분야
 - △각 분야의 프로젝트/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여금의 규모
 - △적용 가능한 지원 방식 등을 명시

✓ **Voluntary Contribution에 관한 한-유네스코 MOU 내용**

- 모든 자발적 기여 사업에 대한 사업 체결, 의사결정 권한 등은 공여자가 가지고, 외교부는 이 MOU의 틀 안에서 한국의 다양한 공여주체를 대표하여

△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정보의 공유

△ 유네스코와 국내 관련 부처·지자체·기관 간의 공식 행정 소통 등에서 단일화된 창구 역할을 수행

- **향후 모든 신규 자발적 기여 사업에는 이 MOU 규정을 적용**



✓ **이천시 자발적 기여 사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비 송금
(2018년 1월, 미화
8,000불을 유네스코
사무국으로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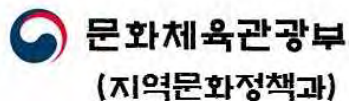
**=> 모든 형태의 자발적
기여는 우리나라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참조
넣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진성 : jjjs112@unesco.or.kr

42

창의도시 간 협력 및 인력양성의 중요성



1-1. 창의도시 간 협력의 중요성

- '국가간' 경쟁의 시대에서 '**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장소성, 지역성 강화)
- 도시간 현안 공유,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문화를 통한 융합**)
- 정보 및 지식 공유를 넘어 새로운 시각을 통한
잠재력, 가능성 발견
- **지역문화진흥법상** 협력은 필수조건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협력활동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2. 협력의 목표 및 방향

* 주체(주민, 공무원, 활동가, 전문가), 도시(국내외), 분야별 협력

- 도시별 문제점 및 현안 공유 ⇒ 해결방안, 노하우 확보
- 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역 자생력과 자치기반 확보
- 창의·문화도시 구축 및 지역 상생구조 형성
- 지역 홍보 및 마케팅

1-3. 협력의 기대효과 및 결과

- 지역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
- 도시브랜드 구축 및 가치 형성
- 도시기반 형성,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국내도시 주도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 동아시아 도시 간 주도권 확보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2-1. 문화예술 인력의 중요성

- 4차 산업, 융합의 시대 ➔ 창의성,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중요
- 특정 분야에 편중된 한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젊은층 필요
- 콘텐츠 및 문화 기획, 생산(제작), 스토리텔링, 홍보 등 분야별 전문인력 부족
- 지역별 인력수준 및 활용 격차 심화

2-2. 인력양성의 목표 및 방향

- 담당 공무원, 관계자 등의 전문성, 현장성 강화
- 국내외 교류 및 경험 확대를 통한 노하우 축적
- 소통, 갈등해결, 분쟁조정 능력 강화
- 분야별, 지역맞춤 인력 양성(질적, 양적)

2-3. 인력의 활용 및 기대효과

- (공공) **글로벌 행정가 확보, 정책 및 정책의 연속성**
- (민간)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공·전문가와 **주민 사이의 간극 극복**
(행정적 효율과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역사·문화·장소 중심의 **창의·문화도시 추진**
(**지역의 정체성, 다양성, 차별성 확보**)

감사합니다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
|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유네스코 창의도시 신청, 이해와 오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워크숍
부산 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 홀
2018. 05.17.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한경구

이해와 오해

- 이해를 위한 노력
 - 유네스코 본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노력
 - 학술연구 및 전문가
 - 활동과 경험의 축적. 교류와 학습
- 오해의 발생과 반복
 - 사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 가입은 과정이며 사건이 아닌데...
 - 분야 선정과 접근 체제
 - 신청서 작성과 신청 과정
 - 가입 승인 후의 활동

해인사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 아님.

1995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the Depositories for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이해

Understanding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유네스코

- 평화를 위해 설립
 - 전쟁의 방지
 - 평화 개념의 확대와 변화
- 사람의 마음을 중시
 -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
 - 과학의 추가
-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
 - 국가 - 대표부와 대사
 - 개인과 전문가
 -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의 존재

유네스코와 문화유산: 등재사업

- 유네스코 활동 중 매우 가시적, 관심 집중.
 - 세계유산(World Heritage) 1978
 -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1995
 -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 문제점
 - 엘리트주의. 유럽중심이라는 비판
 - 정치화의 문제 - 식민주의 등
 - 국민국가의 위세 경쟁. 민족주의. 오히려 갈등 초래
 - 국가위원회들에게 자제 호소(ICH Bali, 2011.11)
 - 등재 신청 제한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UNESCO World Heritage (1978)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협약(1972)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
-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
- 유럽중심, 엘리트주의 등 비판.
- 167개국 1,073점(2017년 7월 기준) 한국은 12점

9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1995)



Memory of
the World

- 취지
 -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접근성의 향상
- 목적
 - 최적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 지원.
 - 기록유산의 보편적 접근성의 향상.
 -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 제고.
- 128개국 및 8개 기구 427건(2017년 11월 현재). 한국 16건

인류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 1992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으로 시작. 2006 무형유산보호협약발효.
- 대표목록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등재(Inscription)
- 긴급보호목록(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11

창의도시네트워크사업 (2004)

-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 변화와 창의도시
 - 문화 개념의 변화
 - 보존과 활용과 발전
- 발전과 유네스코
 - 평화에 대한 관심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빈곤으로. 발전과 교육. 발전과 문화 그리고 창의성.
- 지속가능성과 유네스코
 - MDGs에서 SDGs로
- 왜 도시인가?
 - 도시의 중요성. 인구. 리소스. 돈.
 - 국민국가를 넘다...

문화유산과 발전에 대한 신접근

- 문화유산의 보존?
 - 누구의 비용으로 누가 보호하는가?
- 관광이 해답이 되는가?
 - 악마와 춤을 추는가?
 - 사라질 것인가 또는 팔릴 것인가 라는 선택?
 - 변화인가, 왜곡인가?
 - 상품화의 문제 - 전통시대는 순수했는가?
-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 나쁜 발전, 더 나쁜 발전, 그리 나쁘지 않은 발전
- 해결책으로서의 창의산업
 - 문화적 자원의 활용.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 창의적 인재

창조경제와 UCCN, 해결책?

- 창조경제
 - 문화산업
 - 창의산업들
 - 관광의 새로운 흐름: 문화, 체험, 녹색 등
- 문화 유산
 - 과거에는 문화 유산의 존재는 저주이기도
 - 더 이상 발전의 장애나 부담이 아니라...
 - 창의적인 '자원들'은 자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음.

창의도시

- 도시 문제를 도전으로 접근
 -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발전의 과제들을 도전으로 간주하며 접근. 창의성을 행동의 동력으로 활용.
- 왜, 도시인가?
 - 인구 -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거주. 증가세.
 - 경제 활동(75%), 산업, 소비자
 -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부문의 경계를 넘어서 교류와 협력과 융합이 가능.
 - 창의적인 사람들. 다양성.

창의도시사업의 이슈들



- 협약도 없고 로고도 없고...
 - 죽이려다가 살아난 사업?
 - 오랜 침체기와 부활
- 2015년의 변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창의도시네트워크의 가능성
 - SDGs
 - 국민국가를 넘는 도시들의 네트워크
- 재정 문제
- 국가위원회와의 관계

What Is UCCN?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17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2004)의 목표
 - 창의성을 지속가능 도시 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도시들 간의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동반자 관계를 통해 추진.
- 2017년 11월 현재
 - 국내 8개 도시(서울, 이천, 전주, 광주, 부산, 통영, 대구, 부천)를 포함하여 전 세계 72개국 180개 도시
- 어떠한 도시들이 가입하는가?
 - **창의성(creativity)** 과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을 지역 수준의 발전계획의 핵심으로 하면서 국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18

UCCN Objectives 2

- 문화 활동(cultural activities), 문화 상품 및 용역(goods and services)의 창조, 생산, 분배 및 배포 강화
- 창의성과 혁신의 허브를 발전시키고 문화 부문에서 창조자들과 전문가들(creators and professionals)을 위한 기회를 확대
- 특히 주변화되거나 취약한 집단과 개인들(marginalized or vulnerable groups and individuals)을 위해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향유뿐 아니라 문화적 생활에의 접근과 참여를 향상함.
- 문화와 창의성이 지역의 발전 전략과 계획(loc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lans)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함.

19

창의 분야 7개

- Crafts and Folk Arts (공예와 민속예술) 이천
- Media Arts (미디어 아트) 광주
- Film (영화) 부산
- Design (디자인) 이천
- Gastronomy (음식) 전주
- Literature (문학) 부천, 파주
- Music (음악) 대구

20

주요 변화들

- 신청서의 간소화
 - 2013 Guide: A4지 80매를 넘지 않도록 권고.
 - 2015년 신청서들: 30매. 글자 수 지정.
 - 2017년 신청서들: 더욱 구체화.
- 정보 간소화
 - 이미지, 차트, 다이어그램 불가
 - 추가 미디어 제출 불가.
 - 하드카피 제출 불가. 웹사이트 주소만 제출.
- 세부 항목에 따른 기술 요청
- 심사 절차의 변화 및 간소화
 - 기존 도시들의 심사 참여

21

평가 간소화

- 신청 도시의 동기
 - 어떠한 주요 발전 도전? 창의산업이 어떻게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가입의 영향은?
- 신청 준비 과정
 - 주요 stake holders, 정부, 창의 인력, 주민, 민간자본, 시민사회의 참여 등. 지속가능성 및 성공 여부는 준비 과정으로 판단 가능
- Comparative Assets
 - 네트워크에 후보 도시가 어떠한 Comparative assets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주요 문화 자산. 창의 인력.
- 네트워크에의 기여
 - 후보 도시는 네트워크의 목적 달성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중기계획 및 구체적 행동 기술 요구

22

변화의 합의

- 준비 및 신청의 간소화
 - 비용 및 심사 과정 객관화
- 심사과정에 기존 멤버 도시 참여
 - Peer review 성격
-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
 - 가입 도시 증대 기대
- 네트워크의 질적 확대
 - 네트워크의 활동 기대

23

변화의 이유 (추정)

- UCCN은 상대적으로 좋다?
 - 갈등 요인 및 과도한 경쟁 적음
 - 세계유산사업과 무형문화유산사업의 문제점
- 신청 및 심사 절차 부담 경감
 - 회원 도시들의 참여
- 문화유산 safeguarding 효과
- 개발 목표 관련
 - 경제적 효과
- 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 위한 UCCN의 역할
 - 2015년 9월 193개국의 정상들이 합의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하나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채택

24

제안!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 사업 취지 및 변화 내용 홍보
 - 창의산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강조
 - 유네스코 본부의 방침 변화 설명
- 국내에서 창의도시 협의체 조직 및 운영
 - 기존 가입 도시의 경험 공유
 - 가입 희망 도시에 대한 지원
 - 타당성 검토
 - UCCN 가입 준비 과정 지원 및 모니터링
 - 예산 및 비용 과용, 오독과 오해 문제 등
 - 시민 참여, 전문가 참여 유도

25

- 향후 기존 가입 도시의 UCCN 활동 지원
 - 지원, 교육 훈련
 - 특히 언어 문제 극복 위한 노력
 - 시민과 도시 전반의 글로벌화 관련.
 - 경험의 공유 및 제도화
 - 평가
- 다른 사업 및 조직과의 연계
 - ODA 사업들과의 연계
 - 대학과의 연계
 - 지역의 전문가, 창의적 인재와의 연계

26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 유네스코의 지원
 - 재정 지원 등은 전혀 없음.
 - 유네스코의 로고와 명칭 등 사용 가능.
-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 의지와 태도, 계획과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
 - 지속가능발전 노력의 계기로 활용
- 회원도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자기 평가
 - UCCN Membership Monitoring Reports
 - Self-evaluation reports
- 회원이 될 경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회원 도시로서 매우 특별한 기회 향유

27

UCCN은 매우 특별한 기회

- 회원 도시들과 지식과 경험 공유
 - 동료 학습 과정(peer learning processes) 및 협력 사업들(collaborative projects)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 공유.
- 창의적 자원을 자본으로 충실히 활용,
 - Fully capitalize on their creative assets...
-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기회 제공
 -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이며, 균형된 발전(sustainable, inclusive and balanced development)을 이룩할 매우 특별한 기회를 제공함.

28

한국의 도시들의 경우

- 동아시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하나
 - 경제, 군사, 정치, 인구, 자원 등의 집중도, 빈곤과 불평등
 - 민족주의, 상처. 자민족중심주의, 이민, 차별과 배제, 문화다양성
 - 긴장 지속. 평화의 문화와 갈등 관리 필요
- 글로벌 사고와 시야: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 국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교류하고 협력
 - 아이덴티티 문제. 시민의 세계화. 지방의 세계화
- 지속가능발전의 문제
 - 환경문제.
 - 창의산업. 문화유산

29

오해

신청 추진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해와 잘못
Misunderstandings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UCCN

1. 사업의 목적과 취지 문제

- 유네스코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 기구
 - 인권, 문화 간 이해, 세계화, 지속가능발전 등
 - 기방(妓房) 문화? 낫다리밟기?
- 문화적 자원에 집착
 - 장기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과의 관련성이 중요!
- 내부자의 시선(Ethnocentrism) 문제
 - 외부자의 시선으로 등재신청서 작성할 필요.
- 유네스코 등재 사업들의 특성
 - 예산 지원 없음.
 - 유네스코 로고 사용 등을 통한 효과 기대

2. 추진체계의 문제

-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도시 발전 전략**임.
 -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포스트 2015 발전목표 (SDGs)의 일부.
- 창의도시 신청에서 **분야**의 의미
 - 해당 분야의 문화적 자원의 탁월성에 대한 국제적 인증이 아님!
 - 문화 자원의 창의적 활용 통한 **지속가능발전 의지와 태도 중요**.
 - 요식업자, 식료품상, 요리사가 음식 창의도시의 주인이 아니듯, 문인도 문학 창의도시의 주인이 아님! **시민이 주인!**
- 협력과 동반자 관계
 - 시민사회, 공공부문, 민간부문(비즈니스)의 **동반자 관계** 중요.
 - **개방과 포용** - 창의도시는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곳.
 - **창의성** (창의산업, 문화산업 포함)을 도시 발전의 핵심으로.

32

3. 가입은 과정, 사건이 아닌데...

- 가입 과정의 중요성
 - 가입 과정에서 깨닫고 분명해지는 것들
 - 오래 고생한 도시들의 경우
- 가입 승인의 의미
 - 특히 UCCN의 경우에는 가입승인이 도달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
- 가입 이후의 활동
 - 도시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지속가능발전
 -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
 - 보고서 제출

蛇足?

A Few Tips from My Experience with Jeonju and Bucheon



전주의 추진체계 문제

- 추진 과정
 - 전주시청, 전주시정발전연구소의 제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추천으로 용역 요청.
 - “...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시켜드릴 수는 있으나 창의도시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주 사람들의 몫이므로.....”
- 지역의 학계, 시민사회, 비즈니스의 참여 문제
- 시민역량의 형성 문제
- 지역 정치적 사항들

창의 산업 문제 - 전주 신청서

- 전주는 Gastronomy 분야의 신청
 - 창의산업
 - 창의인력
- 창의산업으로서의 전주 요식업
 - 놀라울 정도로 취약.
- 주부에 주목
 - 창의 인재로서의 주부.
 - 지역 여성들의 이야기와 전통
 -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음식.

전주의 한식이란?

- 한식은 정성의 음식(Sincere Food)
 - 악식(惡食)과 미식(美食)
 - Slow Food를 포괄하는 정성 어린 음식
- 건강과 환경친화적 음식
 - 쌀과 콩... 전북대 쌀 문명 연구소
 - 콩나물, 두부...
 - 발효음식... 장,
- 협력과 교류의 음식
 - 들, 산, 바다
 - 로컬 네트워크(식재 등)와 글로벌 네트워크

그런데...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부천시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Since 2017

문학창의도시 부천

- 부천의 문학
 - 부천은 어떻게 동아시아 최초의 문학도시가 되었나?
 - 한국에서 문학을 이야기할 때 부천은?
 - 한국문학과 유치 경쟁 당시 부천은?
 - 부천의 문인들, 누구를 아시나요?
- 부천
 - 서울과 인천 사이. 인천 소속감
 - 부평과 인천에서 부천 (1914). 소사 복숭아 (1904부터)
->복사골
 - 경인공업지대, 위장취업과 성고문, 신도시, 시민운동
 - 부천필, 영화제, 만화와 애니메이션



생각해보았는데....

자-알-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16.12.23)

43

- 부천시는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급성장한 도시로서 현대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와 민주화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이기도 하다.
- 기존의 문학 분야 가입 도시들과 비교한다면 통념상의 문학의 역사와 전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문학의 창조적 힘을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부천시 의 장기발전계획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가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다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지한 일정은 바야흐로 신청을 준비하려는 부천시로서 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매우 무리가 크며 또한 해당 분야에는 국내 선발주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2016.04.02)

44

문학 창의도시들

기존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들은?

가입추진설명회 부천 상동도서관 2016.10.10

45

스토리의 구성

부천, 어떻게 문학창의도시임을 이해시킬 것인가?

46



왜? 문학도시인가

부천의 꿈

- 공업도시, 이주민의 도시
- 가난을 극복한 도시, 배움을 열망하는 도시(50~60년대)
-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현장 (70~80년대)
- 시민운동의 메카 (90년대)
-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2000년대)
- 부천 2025장기발전계획 최우선 과제
- 90년대 부터 문화, 학습, 도서관 집중 육성

49



문화도시 부천의 지향



50

왜 문학도시인가?

삶을 바꾸는 문학의 힘

삶을 견뎌내고
살아갈 힘 발견



표출하고
공감하면서 치유

압축성장 문제해결

[시민의 힘] + [문학자산]

부천의 문인

초·중·고 교과서 수록



문학단체



문학축제·문학상·백일장 등 문학의 생산과 향유

문학축제

문학적 전통을 기념하고 문학의 향유와 생산 촉진



- 수주문학제 - 수주문학상**
 > 2005년부터 매년 400여 편 응모
- 필백축제 - 문학상, 사회봉사상**
 > 2006년 부터
- 진달몽당축제 - 시민백일장**
 > 2005년 부터
- 도서관축제 - 독후감 공모전**
 > 2000년 부터 매년 1,000여 편 공모
- 시가 활짝 공모전, 청소년 연극제**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학 공모전과 축제

왜? 창의도시인가

55

왜 창의도시인가?



56

연구기관



57

창의산업



창의산업예산 1,204억원 - 11.2%

> 문화관광 803억 원, 교육학습 401억 원

출판산업

> 529개, 연간 매출 115억 원

만화영상산업

> 168개 업체 970명 종사, 연간 매출 236억 원

부천서점협의회

> 11개 서점, 도서관·지역서점구매 1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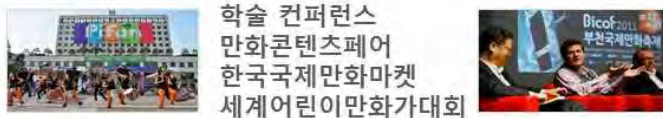
58

국제교류



- 부천 - 가와사키시 도서관 교류**
- 국제만화가대회사무소**
> ICC
- 앙굴렘, 엔타이 만화교류**
- 아시아판타스틱영화제작네트워크**
> NAFF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일본 음악창의도시 가나자와 공연

국제행사



학술 컨퍼런스
만화콘텐츠페어
한국국제만화마켓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청소년 영화아카데미
환상영화학교
영화프로젝트마켓
SF소설워크숍



아시아애니메이션 포럼
창작콘텐츠아카데미
애니프리젠테이션
잡 세미나



주요사업계획

61



역점추진사업 | 6대 사업

UCCN : 문화와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창의산업 육성
도시 간 협력과 상호발전 도모

01 일인일저(一人一著)

02 문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03 이주민가족 문해(文解)사업

04 미래의 도서관 이니셔티브

05 펄벅문학상의 국제문학상 추진

06 문학의 글로벌 다양성 추진

[문화의 생산적 향유, 문화다양성]

62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꿈꾸는 부천

부천은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문학으로 도시를 성숙시킨 경험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65

문제점과 한계

66

시민과의 협력체제 문제

-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신청서 문건의 작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도시를 계속 추진해나갈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의 협력 체제의 구성 및 가동입니다.
- ... 자칫,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나 담당자들의 시각에서 부천시가 서류 작업만 했지 실질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실질적인 작업은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2017년 가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6.03.16. 메일)

67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 수주 변영로 등 부천이 자랑하는 문인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 부천의 문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 나아가 한국의 문학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기대.
- 급한 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필요
 - 뒤늦은 발상과 촉박한 심사 일정 때문에 무리한 속도로 추진
 - 공공부문, 시민사회, 민간부문, 창의 인재(특히 문인들)의 파트너십
 - 부천신인문학상과 수주문학상의 확대 발전 등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부천'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실천의 모색
-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부천: 개방성 & 다양성. 기회 & 포용

68

부천은 누구와 경쟁하는가?

- 심사는 자격 요건과 기준 만족의 문제
 - 기본적으로는 자신과의 경쟁, 절대평가가 되어야 함.
 - 그러나 상대적 평가를 무시할 수 없음.
- 국문신청서 작성 과정
 - 최고점을 받아야 했던 이유.
 - 부천의 문학 자산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문제
 - 박경리와 토지문학관을 내세운 원주시.
- 영문신청서 작성 과정
 - 출판단지를 가진 파주시와 함께 평가 받게 됨.
 - 창의산업의 규모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
 - 출판단지에 대한 호기심 및 사양산업에 대한 동정과 지지
 - 외국인, 특히 유럽인의 시각에서 왜 부천인가?

69

출판문화도시의 파주

- 인구는 현재 44만. 2020년 70만. GRDP 11조원
- 한국의 문학 생산 종사자의 27%, 출판규모 34%
- 파주출판도시
 - 48만평. 1조원 투입 조성. 1,170개 출판사와 500개의 인쇄사 입주.
 - 현재 1조2천억 원 매출. 2단계 입주 완료되면 3조원 매출 예상.
 - 현재 창의산업 종사자 1만 명, 2만 명으로 증가 예상.
- 행사와 축제
 - 인문학당 강좌 연 200회. 파주북소리 축제 등 연 900만 명 참가.
- 도서관: 5년간 476억 원 투입하여 도서관 5개 신축.
 - 음악, 다문화 등 특화된 서비스
-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발(文發)동, 율곡문화제 등 다양한 유산.

70

한계와 과제

- 아시아 문학에 대한 유럽의 이해 부족
 - 아시아 문학 전반에 대한 무지. 특히 한국 문학.
 - 문학창의도시는 아시아에서 바그다드 1개뿐.
 - 부천의 대응은? 문학의 글로벌화?
- 탁월성과 대표성 문제
 - 전문가 외에 기존 가입 도시들 평가 참여.
 - 기존 문학 창의도시들(노벨상 수상작가, 역사성 등)의 탁월성 및 대표성 강조 성향
 - 부천의 대응 전략은?
- 창의산업 관련
 - 출판업과 서점 기반 취약.
 - 문학과 만화/영상산업의 구체적 연결고리 문제.

71

문학? 만화? 창의산업?

- 문학
 - 부천 문학 활동의 핵심을 도서관으로 설정한다는 것
 - 근대 유럽에서 형성된 문학 개념에 대한 이의 제기
 - 동아시아의 文과 文學 전통을 근거로
- 문학과 만화
 - 제9의 예술? 저질? 문학의 적?
 - 동아시아의 전통: 上圖下文, 八相圖, 五倫行實圖
- 창의산업
- 동아시아 출판인 회의. 오키나와 실.
- Pearl Buck과의 인연 - 디아스포라 문학상

72



신청서 작성과 영문홈페이지

- 신청서의 문제
 - 양적인 제한 – 세부 항목으로 기술, 글자 수 제한
 - 질적인 제한 – 깊이 있고 호흡이 긴 이야기 전개 곤란
- 신뢰와 이해와 설득의 문제
 - 부천처럼 낯선 도시가 문학에 도전할 때의 문제
 - 신청서가 “소설”이 아니라 현실임을 설득하려면...
- 상륙작전으로 본다면
 - 신청서의 제출은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한 것
 - 영문홈페이지는 상륙부대에 연료와 탄약과 식량과 보충 병을 공급하는 것
 - <http://bucheoncityofliterature.or.kr/site/main/dbsptmzh2>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가하기
| 오재환 이천시 창의도시교류팀장

About the annual meeting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창의도시교류팀장
오재환

창의도시네트워크 연례회란?

정의

-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들이 일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

개최시기

- 시기 : 년1회(3~6월 사이에 개최)

개최도시선정

- 당해 연례회에서 2년 후 개최도시 선정
 - 2016 연례회(스웨덴 외스터순드) → 2018년 크라코우-카토비체 연례회 확정
 - 2017 연례회(프랑스 앙경레방) → 2019년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연례회 확정
- 선정방법
 - 후보도시 접수 → 후보도시 설명회 → 투표 → 연례회 총회서 확정
 - 2016년도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와 폴란드 크라코우-카토비체 경합 → 폴란드
- 선정시 고려사항
 - 지리적 균형
 - 분야별 균형
 - 국제적 접근성 용이



회원도시증가 비교 표

기준년도	국가	회원도시	비고
2014	32	69	
2017	72	180	
증감	+40	+111	



운영상 문제점 발생 : 직접의사소통기회 감소

연례회가 필요한 이유는?

■ 연례회 주요 목표(Objectives)

- 회원도시간 정보교환 & 협력관계 모색의 장
- UCCN 전략 및 주요활동 사항 결정
- **운영위원회 (Steering Group)** 활동 우선순위 선정
- 네트워크 향후 발전 관련 주요 사안합의
- 유네스코 사무국과 UCCN 사이의 대화 및 소통의 장

운영위원회 (Steering Group)

- 창의도시 후보도시 평가(50%반영)
- 회원도시 활동결과 보고서 평가(매4년마다)
- 네트워크 운영관련 제안 및 회원도시 의견수렴 등
- 구성 - 14개 도시 대표(7개 분야별 의장 및 부의장도시)

구분	총계	문학	공예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영화
의장도시	7	크라코우 (폴란드)	파브리야노 (이탈리아)	겐트 (벨기에)	셴젠 (중국)	세네갈 (다카르)	외스터순드 (스웨덴)	골웨이 (아일랜드)
부의장도시	7	더블린 (아일랜드)	이천 (대한민국)	만하임 (독일)	디트로이트 (미국)	앙경레랭 (프랑스)	엔세나다 (멕시코)	시드니 (호주)

연례회에서 주로 다루어진 이슈는?

년도	개최지	주요이슈	비고
2013	볼로냐(이탈리아)	-UCCN 별도법인설립 (자체 자금, 운영규약, 사무국을 지닌 별도 법인 설립)	일부 도시 반대
2014	청두(중국)	-UCCN 법인설립 백지화 (로고 및 명칭사용문제 거론) -신 네트워크운영 방향 제시 1. 신규도시지정최종권한 → 사무총장 2. 운영위원회 신설 운영 3. 네트워크 운영 → 유네스코 사무국	
2015	가나자와(일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구체화 (구성, 임기, 임무, 역할 등)	
2016	외스터순드(스웨덴)	-모니터링 리포트 평가 (2004-2006 가입도시 8개 도시 평가)	
2017	앙쟁레뱅(프랑스)	-네트워크 운영관련 신규 전략틀 채용 -회원도시 재정기여 명문화 (자발적 기부형식 최소2,000달러) -신규 회원도시 지정 숫자 제한 (2019부터 동일국가당 최대 2개도시) -회원도시별 연례회 참석인원(최대3명)	

연례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될까?

세션	주요활동내용	비고
총회	회원들의 주요활동 및 성과 발표(모니터링 리포트 포함), 주요 이슈에 대한 결정사항 발표(결의문 또는 합의서 채택) (2018년-미래 발전 전략 및 주요 이슈 제시, 지난해 네트워크 활동상황 공유)	
시장단 포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주요 정책 소개 및 유네스코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지 및 협조 유도 (2018년-2030의제의 지역정책개발 및 전략통합에 대한 논의)	
서브네트워크회의	7개 각 창의분야별로 현재 진행중인 공동프로젝트 및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정보공유 및 각 분야별 현안사항 논의 (2018년-각 분야별 의장, 부의장 도시 선출 예정)	
횡단주제 워크숍	창의분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2018년-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공유)	
통합세션	신규 회원도시들의 원활한 네트워크 내 진입 유도 동료 도시들과의 편안한 만남의 자리 제공 (2018년-주요 핵심이슈에 대한 발표와 공통의 도전과제 등 공유)	
예술&문화 프로그램	연례회 개최지에서 열리는 글로벌/또는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참가 (2018년- Miłosz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Garden of Sounds Music Festival 등)	

성공적 참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영어(English)

감사합니다.

세션 2 | 우리 도시와 문화 - 조별활동

조별활동 주제 및 조편성 안내 89

조별토론 주제

주제 1 |

문화적 자산 활용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개발과
도시 이미지 제고 (도전과 과제 중심)

주제 2 |

문화기획자-지자체-기업 간 협업을 통한 창의
산업 육성 사례

조 구성

분류	구성원 (도시)	전문가
1조	김해, 부산, 광주	박경립, 이철호, 허용호
2조	전주, 안산, 원주	한경구, 이정덕, 남기범
3조	진주, 이천, 부천	한건수, 안재락
4조	청주, 대구, 통영	채지영, 박세훈

진행안

- ▷ 조별 구성원 상호 소개/인사
- ▷ 발표자 & 기록자(PPT 간단히 작성) 선정
- ▷ 주제 1, 2에 대한 토론

- ▷ 조별 토론 주요내용 발표
- ▷ 질의응답 및 코멘트

세션 3 | 부산도시영화제 연계 세션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개요 및 프로그램 참고자료 93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Busan Independent Film Association (BIFA)
FILM - FESTIVAL, PRODUCTION, DISTRIBUTION, EDUCATION
|영화제, 영화제작, 영화배급, 영화교육

1.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Busan INTERCITY Film Festival



1. 개최목적



[목적]

- 다양한 장르의 로컬영화와 각 도시의 개성이 드러나는 우수한 작품을 소개
- 각 도시 별 문화와 제작 경향을 알고 국내외 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내용]

- 레지던시 영화제작사업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영화제의 폐막식에서 상영
- 각 도시의 우수작품 상영 및 세미나 등의 행사

1.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Busan INTERCITY Film Festival



2.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5월 17일(목) ~ 5월 20일(일) 3박 4일간
- 장소 : 영화의전당 소극장
- 개막행사 : 5월 17일(목) 19:00 - Intercity섹션 베스트
- 폐막식 : 5월 20일(일) 19:00 - 2018 레지던시영화제작 작품 상영

슬로건
‘In the City, 도시속에서’

- 도시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노동, 여성 등)의 모습을 바라본다.
* 2017년 슬로건: 부산독립영화제의 인터시티 섹션을 독립한 의미로 ‘Inter-City’ 슬로건으로 진행.

1.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Busan INTERCITY Film Festival



3. 세부프로그램

[상영 계획]

- 유네스코영화창의도시, 부산도시영화제 교류 도시 그리고 부산의 총 20 여편의 장, 단편영화를 선정하여 상영
- 제2회 레지던시영화제작사업의 완성 작품은 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
- 주빈 도시 특별전 개최 : 산토스-부산영화제 / 야마가타 특별전(다큐멘터리)
- 2017년 제1회 레지던시영화제작 작품 상영
- 관객과의 대화(GV) 행사 진행

[섹션(프로그램) 소개]

NO	섹션명	내용	세부내용
1	Inter-City 01 ~ 04	각 도시 별 초청 영화 상영	전체 16개 도시의 영화를 대상으로 슬로건 ('In the City')에 부합하는 영화를 상영
2	residency in BUSAN	제2회 레지던시영화제작 완성작	폐막식에서 3작품 상영
3	Re-play	제1회 레지던시영화제작 완성작	2017년 완성작 5편 상영
4	Beyond CITY	주빈 도시를 선정한 교류전 및 상영	①부산-산토스영화제 특별전 ②야마가타 특별전 '오가와 신스케' 감독

1.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Busan INTERCITY Film Festival



3. 세부프로그램-Intercity섹션 초청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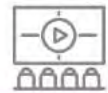


2017.11 추가선정도시



1.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Busan INTERCITY Film Festival



3. 세부프로그램 - 부대행사

(1) 개막행사

- 2018년 05월 17일(목) 19:00 영화의전당 소극장
- 집행위원장 인사
- 특별전 영화 상영 : Intercity섹션 베스트

(2) 폐막식

- 2018년 05월 20일(일) 19:00 영화의전당 소극장
- 영화제 결과보고 및 레지던시영화제작사업 메이킹영상 상영
- 레지던시 참여영화인 소개
- 레지던시제작사업 완성 작품(총 3개) 상영
- 레지던시제작 작품 GV(관객과의 대화) 진행



1.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Busan INTERCITY Film Festival



3. 세부프로그램 - 부대행사

(3) 주빈도시 특별전

- ① 부산-산토스 도시영화제
 - UCCN 2030 AGENDA 주제에 맞는 단편영화 각 도시별 5~6편을 선정, 산토스와 동시간대에 영화제를 개최하여 유네스코영화창의도시 간의 깊이 있는 교류를 이어간다.
- ② '아마가타' 특별전
 - 2017년 11월 새롭게 유네스코영화창의도시로 선정된 일본의 아마가타와의 교류, 세계 다큐멘터리의 거장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작품을 선정, 상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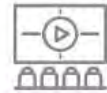
(4) 세미나 개최

- 일시 : 5월 17일 목요일 16:00~17:30
- 주제 ① "in the CITY, 그리고 2030 AGENDA"
 - : 주빈도시로 선정된 브라질 산토스의 작품과 부산의 작품을 통해 도시 안에서의 삶을 이해하며, 영화를 통한 2030Agenda의 의미를 짚어본다.
- 일시 : 5월 19일 토요일 17:00~18:00
- 주제 ② 오가와 신스케감독이 말하는 도시, 그리고 그 안의 삶"
 - : 유네스코영화창의도시 중 하나인 아마가타의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작품을 보고, 부산의 대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관객들의 영화해설을 돕는다.



1.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Busan INTERCITY Film Festival



3. 세부프로그램 - 부대행사

산토스-부산 교류전 Santos-Busan Film Exchange

목표 : 영화를 통한 문화 교류. 브라질-한국, 부산-산토스 유네스코 영화창의 도시간의 네트워크

설명 : 산토스와 부산은 2018년 두 도시에서 함께 상영할 수 있는 영화제를 개최하는 동시에 유엔의 2030 Agenda의 17개 목표에 부합하는 단편영화를 상영한다.

세미나 : "In the CITY, 그리고 2030 AGENDA"

의미 :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인 'In the CITY'와 유엔의 지정한 '2030Agenda' 17가지 목표에 부합하는 영화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각 도시에서의 삶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진행순서 및 내용

16:00 ~ 16:15	인사 및 행사, 특별전 개최이유	최용석 집행위원장님
16:15 ~ 16:20	산토스영화제 담당자 인사영상	Niedja de andrade님
16:20 ~ 17:00	부산, 산토스 단편영화 감상, 각 1편씩	부산 <집 속의 집 속의 집>, 산토스 <TOCANDO MEU DESTINO 내 운명을 연주하다>
17:00 ~ 17:30	작품해설 및 GV	김기만 총괄 프로그래머님, 전찬영 감독, Dandi Quieroz감독

1.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Busan INTERCITY Film Festival



부산 작품



〈집 속의 집 속의 집〉
(25min)
전찬영
2017 제19회
부산독립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산토스 작품



- 〈TOCANDO MEU DESTINO 내 운명을 연주하다〉 (15min) / Santos(2015)
-연출 : Dandi Quieroz

-수상
: Best National Doc II Mostra Curta Pará – Belém, PA, Brazil, 2015.
Selection in 22 Brazilian Festivals.

★ 수급 완료 후 각 도시 별 1편의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 후 영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여성, 노인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감사합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607호
대표번호 070-8888-9106
이메일 indibusan1999@naver.com
홈페이지 <http://www.indipusan.or.kr>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Busan - City of Film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4

부산독립영화협회 (BIFA)



2018 상반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